우암학원 창학 70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대표전화 (062)222-8111 제2158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69 2021년 9월 3일 금요일 음력 7월 27일 kwangju.co.kr

소비자 물가 고공행진 "추석 장보기 무서워요"

광주 외식물가 상승률 5개월째 전국 최고

광주 외식물가 상승률이 5개월째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좀처럼 내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 농수축산물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 가격이 대부분 오르면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2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9% 상승했다.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는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부터는 두 지역 모두 6개월 연속 전국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다.

광주 외식물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4%대로 오르면서 5개월 연속 최고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지역 외식물가 상승률은 광주 4.1%·전남 2.8%이었고, 전국 평균은 2.8%로 나타났다.

지난달 광주에서는 구내식당 식사비(11.9%)와 갈비탕(11.5%)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고, 전남은 햄버거(9.2%)와 죽(7.6%) 등의 오름세가 뚜렷했다.

지역 외식물가 고공행진은 연초부터 이어진 농축수산물 값 상승의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호남통계청이 조사를 벌인 농축수산물 73개 품목 가운데 광주는 49개, 전남은 40개 가격이 올랐다. 이 가운데 '두 자릿수' 급등한 품목은 광주 23개·전남 18개에 달한다.

지난달 달걀 가격은 전년보다 광주 64.3%·전남 42.9% 오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파동이 일어난 뒤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금치(광주 41.0%·전남 11.3%), 마늘(광주 31.0%·전남 21.7%), 국산 쇠고기(광주 12.0%·전남 7.5%), 돼지고기(광주 9.2%·전남 9.0%), 쌀(광주 14.1%·전남 13.6%) 등 밥상물가 대부분이 올랐다.

명절 수요가 높은 사과(광주 53.4%·전남 75.9%)와 배(광주 41.2%·전남 44.3%), 감(광주 55.6%·전남 24.2%) 등 주요 과일 가격도 상승했다.

광주·전남은 농축수산물과 공업제품, 집세, 개인서비스 등 주요 품목 대부분 가격이 올랐다.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은 지난 5월부터 넉 달 연속 '20%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 집세는 전년보다 0.8% 올랐는데, 이는 지난 2015년 12월(1.1%)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전남 집세 상승률은 0.7%로, 지난 2019년 10월(0.7%)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9월 여수와 목포 시내버스 요금이 오른 영향으로 전남 공공서비스 가격은 2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임상문 호남통계청 경제조사과 팀장은 "지난해 겨울 내린 폭설부터 올 봄 잦았던 비, 폭염, 가을장마 등 이상기후와 재해가 잇따르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심하다"며 "국제유가 영향을 받아 공업제품 가격도 오르면서 하반기에도 고물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2일 오전 광주 북구 운암시장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회 직원들과 부녀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물류센터·학교 등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광주, 대규모 감염 현실화 우려
외국인 사업장 검사 행정명령

광주에서 코로나19 산발 감염으로 인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탓에 동선 파악 등 방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도 방역당국에겐 큰 부담이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26명(지역감염 24명·해외유입 2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선제 검사가 진행 중인 외국인 관련 9명이 추가로 나왔다. 최근 광산구 소재 외국인 관련 확진자는 105명에 이른다. 북구 지인 모임 3명, 광산구 의료기관 1명 등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타시도 방문·접촉, 기 확진자 관련도 10명이 발생했다. 유증상 검사자는 1명이다.

최근 광주에서는 집단생활을 하는 외국인을 비롯한 가족·지인 간 모임, 학교, 병원, 주점 등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올해 두번째로 많은 42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광산구 한 물류센터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종사자 120명이 진단 검사를 받고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 9명이 확진됐고, 광산구 초등학교 2곳의 재학생도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돼 학생, 교직원 등 147명이 검사를 받고 일부 원격 수업에 들어갔다.

시는 외국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에는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월 한 달간 외국인 확진자 수는 123명으로 전제 확진자(677명)의 18.4%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최근 이틀간 19명이 신규 확진돼 누적 확진자는 2636명이 됐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순천 4명, 나주 3명, 여수·목포·담양·화순·무안·영광 각 1명 등 13명이 확진됐고 2일 오후 2시 현재 여수·순천 각 2명, 나주·담양 각 1명 등 6명이 양성 판정받았다.

서울·경기·충남·광주 등 타지역 확진자 접촉 과정에서 3명, 자가격리 중 검사에서 2명이 확진됐다. 해외 유입 사례 1명(해외 파병군인), 감염 경로 미확인자도 4명 있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12만여명에 민생 자금 351억원 지원

제14차 민생안정 대책 발표
장애인·임신부·소상공인 등 대상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계 각층 시민 12만1000여명에게 351억원을 지원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14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사회복지·아동 시설 방역물품(21억7000만원), 장애인 등 위기 계층 생계안정 자금(106억7000만원), 집합 금지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222억 8000만원) 등 3개 분야에 걸쳐 26개 사업을 펼친다.

사회복지·장기요양 시설 1108곳에는 마스크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매비로 30만~100만원을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8개 아동복지 시설에는 100만~200만원씩,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310곳에 50만원씩, 1004개 어린이집에 100만원씩 지급한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위기 계층도 돕는다. 등록 장애인 7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통학용 지입 차량과 전세 마을버스 운전자에게는 80만원씩, 문화예술 활동가에게는 50만원씩을 지원한다. 시는 또 임신부 6000여명에게는 30만원씩, 저소득층 추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한부모가족 1300명에게는 10만원씩, 소년·소녀 가정에는 1인당 30만원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장기간 집합 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졌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1124곳에 각각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 손실을 본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5100여곳에는 50만원씩이 주어진다.

국제결혼 중개업체, 여행업체, 마을버스 운송업체, 노래연습장, 성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전체 예산 351억원은 광주시(88%), 5개 자치구(12%)가 분담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해 제한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더 비상한 각오로 방역과 경제의 균형점을 찾아 시민 안전을 지켜내면서도 고통을 덜어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Grocery farm-up store' 전시

경찰, 수사권 가져왔는데 수사 인력 없다 ▶6면
북스 - '동양미술 이삭줍기'
'세상과 나를 바꾸는 지도 커뮤니티 매핑' ▶14·15면
알록달록 채소 전시장으로 오세요 ▶16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